

도, 지속가능발전 위한 밑그림 그린다

‘전북자치도 지속가능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내년 4월까지 국가전략과 연계 수립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토대로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종훈 정책기획관 주재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장들과 전북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전북자치도는 초기 지속가능발전 방안이 주로 환경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생명경제실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생명산업 육성과 경제지립 실현을 통해 도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18일 출범하면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지고,

자치분권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어 전북자치도민의 특색 있는 방안을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년 7월 5일)과 ‘전북특별자치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2023년 3월 31일)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20년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도민들로 구성된 ‘도정정책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관이 협력해 맞춤형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연계하여 올 하반기 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훈 정책기획관은 “전북자치도가 글로벌 생명 경제를 추구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생명 경제 실현을 위해 생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계획,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자치분권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어 전북자치도민의 특색 있는 방안을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년 7월 5일)과 ‘전북특별자치

김종훈 경제부지사, 폭염 취약 축산농가 현장점검 나서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난 9일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송풍팬과 냉방시설 등의 폭염 대비 시설을 점검했다.

폭염대비 사양관리 철저 당부·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지난 9일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송풍팬과 냉방시설 등의 폭염 대비 시설을 점검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8월 8일 기준, 가축 피해는 총 7만4,992두 수로 집계되었다. 축종별로는 돼지 4,968두 수, 닭 6만1,172두 수, 오리 1,852두 수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사 온도 관리와 깨끗한 음수 제공

등 폭염 대비 사양 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여름철 고온이 30도 이상 지속될 경우, 돼지와 닭, 오리 등 고온에 취약한 가축들은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며, 이는 면역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삼할 경우 폐사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붕 스프링클러, 제빙기, 환풍기, 안개 분무기 등 폭염 대응 시설·장비에 16억 원을 지원하고,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8억 원, 면역 증강제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40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각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드린다.”라며, “모든 축산농가가 ‘내 가축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재해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첨단 농업용 로봇 산업 본격 육성 시동

첨단 농업용 로봇 산업 육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 농업용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산학연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 실증 기반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첨단 기술 전환과 농업용 로봇 개발의 필요

성을 반영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국내외 농업용 로봇 정책, 시장, 기술 등 동향 분석하고, 전북자치도 농업용 로봇 연구개발 현황 및 경쟁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 실증 기반 구축 전략과 발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업부가 추진하는 ‘첨단 제조 로봇 실증사업’과 ‘로봇 플래그십 사업’ 등 관련 분야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캠티종합기술원이 맡아 12월까지 과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용역의 효과성을 극대화 예정이다.

또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는 차별화된 첨단 농업용

로봇 과제를 기획하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북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농기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농업용 로봇 산업 육성은 첨단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전북도가 첨단 농업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농기계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폭염 피해 추가 대책 마련

양심 냉장고 설치·도내 전체 무더위쉼터 전면 개방 등 김관영 도지사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행정력 집중”

최고 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추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21일째 지속되는 등 전북지역에서 온열질환자와 가축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지원 대책을 추가하고, 시군과 함께 무더위쉼터 전체 운영 등 피해 최소화에 대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먼저, 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양심 냉장고’를 설치해 생수를 무료로 지급한다.

도내 93개소를 선정하여, 도 재난관리기금 8,400만 원을 활용해 열을 생수를 보급하여, 무더위 시 체온 저감 및 충분한 수분 섭취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도는 도 재난관리기금 4억 8,5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무더위쉼터에 개소당 1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아외근로자·고령 농업인 등 3대 취약계층은 물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적정 실내온도(26~28°C)로 상시 운영하고, 무더위 쉼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그늘막 및 스마트 승강장 등 폭염저감시설 1,534개소를 운영하고,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양산 대여소 40개소를 운영하는 등 폭염피해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도우미를 활용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837대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1만 4,165km의 도로에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광판, 마을 방송, 재난 문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도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가축 관리 요령 전파 등 폭염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께서는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 피해 예방에 도·시군·유관기관이 함께 협심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그늘막 및 스마트 승강장 등 폭염저감시설 1,534개소를 운영하고,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양산 대여소 40개소를 운영하는 등 폭염피해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도우미를 활용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837대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1만 4,165km의 도로에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광판, 마을 방송, 재난 문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도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가축 관리 요령 전파 등 폭염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께서는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 피해 예방에 도·시군·유관기관이 함께 협심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그늘막 및 스마트 승강장 등 폭염저감시설 1,534개소를 운영하고,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양산 대여소 40개소를 운영하는 등 폭염피해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도우미를 활용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837대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1만 4,165km의 도로에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광판, 마을 방송, 재난 문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도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가축 관리 요령 전파 등 폭염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께서는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 피해 예방에 도·시군·유관기관이 함께 협심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그늘막 및 스마트 승강장 등 폭염저감시설 1,534개소를 운영하고,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양산 대여소 40개소를 운영하는 등 폭염피해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도우미를 활용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837대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1만 4,165km의 도로에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광판, 마을 방송, 재난 문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도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가축 관리 요령 전파 등 폭염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께서는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 피해 예방에 도·시군·유관기관이 함께 협심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그늘막 및 스마트 승강장 등 폭염저감시설 1,534개소를 운영하고,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양산 대여소 40개소를 운영하는 등 폭염피해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도우미를 활용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837대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1만 4,165km의 도로에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광판, 마을 방송, 재난 문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도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가축 관리 요령 전파 등 폭염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께서는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 피해 예방에 도·시군·유관기관이 함께 협심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그늘막 및 스마트 승강장 등 폭염저감시설 1,534개소를 운영하고,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양산 대여소 40개소를 운영하는 등 폭염피해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도우미를 활용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837대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1만 4,165km의 도로에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광판, 마을 방송, 재난 문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도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가축 관리 요령 전파 등 폭염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께서는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 피해 예방에 도·시군·유관기관이 함께 협심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그늘막 및 스마트 승강장 등 폭염저감시설 1,534개소를 운영하고,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양산 대여소 40개소를 운영하는 등 폭염피해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도우미를 활용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837대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1만 4,165km의 도로에 살수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광판, 마을 방송, 재난 문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도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가축 관리 요령 전파 등 폭염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께서는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 피해 예방에 도·시군·유관기관이 함께 협심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회복 ‘한마음’

피해 기업 회복 위해... 도청 전직원 농축산물 공동구매

전북자치도 직원들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마토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토마토 공동구매에 나선 배경에는 전북지역에서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가 발생, 토마토의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수록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게 작용했다.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8억5,0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동구매에는 도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총 282kg 314만원 상당 매출 실적을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전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달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피해 기업들에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북생생장터(<https://www.freshjb.com>)를 통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